

남원시, 민자 유치 체류형관광지 본격 개발

남원관광지·남원랜드 등 2021년까지 총 371억원 투입 2.16km 모노레일 설치...지리산 허브밸리 호텔 내달 준공

남원시가 민자유치를 통해 체류형 관광 도시로 도약한다.

27일 남원시에 따르면 남원관광지와 남원랜드, 지리산 허브밸리 등을 개발할 민간개발사업자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개발을 앞두고 있다.

우선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은 ㈜삼안과 이엔티씨(주), 쉐린지코리아가 2021년까지 순수 민간자본 316억원을 투입해 진행된다.

민간업체들은 남원관광지 내 춘향테마파크와 함파우소리체험관, 김병중 시립미술관을 연결하는 총연장 2.16km의 관광형 모노레일을 설치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6월5일 민간투자 대표사인 ㈜삼안컨소시엄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실시계획을 완료하고 현재 각종 인허가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남원시는 의회 동의를 거쳐 실시 협약을 하고 오는 5월 중 사업 착공을 한다. 또

남원랜드 민간개발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남원랜드 민간개발사업은 ㈜아프아트가 2021년까지 순수 민간자본 55억원을 투입해 진행된다. 이 기업은 남원랜드 부지에 미니꽃동산과 숲속놀이터, 숲체험관, 동물체험관, 어린이 놀이시설, 다목적 캠퍼장, 유아용 집라인, VR체험관 등을 포함한 총 5개 테마공간을 조성한다.

남원시는 지난해 12월 6일 민간투자 대표사인 ㈜아프아트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남원랜드 부지매입을 위한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남원시는 이들 민간개발이 완료되면 오랜 숙원인 광한루원과 남원관광지의 관광연계가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지리산 허브밸리 민간 산업단 웰니스존과 호텔의 민간개발사업도 추진한다.



남원시는 민간자본을 유치해 남원관광지와 남원랜드, 지리산허브밸리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은 지리산허브밸리 사이언스센터.

웰니스존은 지난해 5월 준공돼 운영 중이며, 호텔은 다음달 초 완공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 중이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광한루원과 남원관광지를 연결하는 모노레일 및 쉼터와이

설치 등이 체류형 관광거점의 토대를 마련해 줄 것"이라며 "시는 민간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고창군은 경관농업 대표 축제인 '고창청보리밭 축제'를 오는 4월18일 연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고창 청보리밭 축제' 4월18일 개막

축제 슬로건 공모

고창군은 경관농업 대표축제인 '고창청보리밭 축제'의 개최일을 오는 4월 18일로 확정하고 축제 슬로건 공모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고창군 청보리밭축제추진위는 올해 축제 공식명칭을 '제17회 유채꽃과 함께하는 고창청보리밭 축제'를 정하고 오는 4월 18일부터 5월 10일까지 축제를 개최하기로 했다.

올해 축제는 고창군 전역(1408ha, 여의도 면적 4.8배)에 조성한 유채꽃이 만개할 때 시작된다.

축제 슬로건은 '유채꽃'과 '높을고창청보리밭 축제'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간결하

고 창의적인 내용과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간결한 문장을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제출된 작품은 고창군 홈페이지를 통해 설문을 거쳐 선정할 예정이다.

최우수작 1명에게는 20만원 고창사랑상품권, 우수작 1명 10만원 고창사랑상품권, 장려작 1명 5만원 고창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슬로건 공모는 지역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 1인 1점에 한하고 글자수 제한 없이 작성해 고창군청 홈페이지에서 공모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danim222@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익산시시는 최근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 출범식을 했다. <익산시 제공>

익산시, '농촌신활력플러스' 추진위 출범

농업인 대표 등 14명 구성

익산시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27일 밝혔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는 윤희숙 익산부시장과 정명재 명예농업시장을 공동위원장으로 김태열 익산시의회의원과 전문가, 시민단체, 농업인 대표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지난 26일 시청 북부청사에서 위촉식과 함께 제1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 사업은 오는 2022년까지 총 사업비 70억원을 투입해 마을전자상거래를 통한

중·소농가 소득향상, 시골 여행 활성화를 통한 농업 외 소득 창출과 마을 공동체 체험관광 시설 가동률 향상을 목적으로 진행된다.

위원회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사업의 심의·조정·의결 등 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위원회는 기본계획수립 용역 내용을 검토하고 사업 방향과 추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윤희숙 익산시 부시장은 "위원회 출범으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 기반이 마련됐다"며 "농업·농촌의 소득향상 및 지속가능한 역량을 강화해 활력넘치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여수시, '2022유엔기후변화총회' 유치 총력

'세계박람회 여수선언' 정신 계승...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 보고회

여수시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여수 유치에 힘을 모은다.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때 세계와 약속했던 '여수선언'을 계승하는 의미다.

27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6일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여수 유치 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 보고회를 시청 상황실에서 열고 성공 개최 여부를 논의했다.

이 용역은 전남과 경남 남해안 남중권 10개 시·군의 숙원 사업인 '2022년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로 광주전남연구원 연구원이 수행했다.

지난해 4월 착수해 10월 중간보고회를 가졌으며, 지난 26일 최종 보고회가 열렸다.

보고회에서는 당사국총회의 한국 유치 필요성과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남중권의 유치 당위성, 기반시설 현황, COP28 유치를 위한 추진전략 및 과제 등을 제시했다.

용역 결과, 남해안 남중권 10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COP28 유치는 동서회합과 국토 균형발전의 새로운 국가 모델이며,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을 위한 여수선언문의 정신을 가장 잘 계승할 수 있을 것으로 조사됐다.

남해안 남중권은 해양, 내륙, 산악 등 다양한 기후특성을 보유하고 있어 국가별 기후 이슈에 따라 맞춤형 부대행사 개최가 가능하고 산업계의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을 촉진할 수 있는 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당사국총회 유치를 위한 회의장, 숙박, 교통 등 기반시설들은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여수박람회장 시설을 개선하거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조로 시설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됐다.

제28차 당사국 총회(COP28)는 대륙별 순회 원칙에 따라 2022년 아시아 태평양권에서 개최되며 전 세계 198개 회원국(196개국·EU·교황청)에서 총 2만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2021년 총회에서 아시아·태평양권 차기 개최국을 결정하며 한국 개최 확정 시 국내 유치 도시가 최종 결정된다.

한편 2022년에 개최될 COP28은 여수를 중심으로 전남 5개 시·군(여수, 순천, 광양, 고흥, 구례)과 경남 5개 시·군(진주, 사천, 남해, 하동, 산청) 등 남해안 남중권 도시에서 2022년 11월 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에 걸쳐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여수=김정화 기자 chkim@

정읍시, 165억원 들여 지방하천 등 정비

정읍시는 집중호우와 태풍 등 피해 예방을 위해 165억원을 투입해 하천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정읍시는 감곡면 방교리 감곡천, 용동면 용호리 용호천 등 지방하천 14개소, 총 4.5km 구간 정비에 대해 82억원, 부전동 월영소하천 등 소하천 총 5.2km 구간에는 7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하천제방 유지보수비 등 약 7억원을 들여 지방하천·소하천 준설과 동시에 자생수목 제거와 제초작업을 병행할 예정이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하천 재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며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하천 정비사업에 총력을 다해 수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시는 지난해 200억원을 투입해 지방하천 20개소 총 6.85km 구간과 소하천 64개소 총 9.45km 구간을 정비 완료했다.

/정읍=박기섭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순창군 보건의료원, 장기흡연자 폐암 무료검진

순창군 보건의료원은 10갑년 이상 흡연력을 보유한 장기 흡연자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폐암 무료검진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갑년이란 하루 평균 담배소비량에 흡연기간을 곱한 것으로 10갑년은 매일 1갑씩 10년을 피우거나 매일 반갑씩 20년 등의 흡연력을 말한다.

폐암 무료검진은 보건의료원 내 컴퓨터 단층촬영기(CT)를 이용해 저선량 흉부 컴퓨터단층촬영검사로 진행되며, 만 40세

부터 만 70세 사이의 10갑년 이상 흡연자와 금연한 지 15년 이내인 주민을 우선으로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보건의료원(063-650-5311),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로 문의해 사전 예약하면 된다.

정읍군 순창군 보건의료원장은 "우리나라에서 폐암은 암 사망 중 1위이며, 주요 암 중 5년 상대 생존율이 2번째로 낮고, 조기 발견이 중요한 질환"이라고 설명했다.

/순창=장영근 기자 jyg@kwangju.co.kr

고의사기! 허위입원! 허위청구! 과잉진료! 확대수리

한 사람의 보험범죄 전국민의 경제부담

2016년 9월 30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날로 지능화되는 보험사기에 늘어나는 국민손실, 보험사기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보험사기, 반드시 적발됩니다.

MERITZ 메리츠화재 | 한화손해보험 | 롯데손해보험 | MG손해보험 | Heungkuk Fire & Marine Insurance | 삼성화재 | 현대해상 | KB손해보험 | 동부화재 | KOREAN | SGI서울보증 | AXA | AIG | NH농협손해보험